

##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주화운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국민의 힘으로 저지·무산시켰습니다

## 곽 태 영

(조국통일위원장, 박정희기념관반대 상임공동대표)

박정희기념관 건립은 금번(10.30.) 법적 시효가 만료되어 국고지원금 200억 원을 정부에 환수 조치한다는 행자부 발표로 인하여 박정희기념관 건립이 완전 무산된 것을 온 국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년여 동안 함께 싸워 온 항일 애국지사 제위와 300여 참여단체 임원 회원, 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8.15 해방 후에 민족정기가 짓밟힌 채 매국노 친일파 천국의 세상이 계속되는 동안 정의와 역사가 전도된 현실에서 김대중 전 정부가 주도하는 일본군 장교 다카키 마사오 중위 박정희의 기념관 건립 공사를 국민의 힘으로 무산시킨 쾌거는 60년 민족투쟁사에서 찬연히 빛나는 우리 역사의 기념비적인 승리입니다.

패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 침략을 당연시하는 일본 관료들의 망언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생트집을 부리면서 재침략의 야만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침략근성을 규탄하며 우리 국민이 저주, 분노하고 있는 차제에 만일 서울 한복판에 왜군 장교의 기념관이 국민의 혈세로 우뚝 세워져서 그 위용을 발휘하고 있다면 이 나라 역사교육은 어떻게 시킬까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하고 소름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연대는 앞으로도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4월혁명을 짓밟은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군사독재자이며 우리 독립군 학살범 박정희의 기념관이 이 땅 어디에도 세워지는 것을 결코 허용치 않을 것이며 이의 분쇄를 위해서 분연히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떨어진 민족정기를 소생시켜서 7천만 겨레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민주·평화통일을 완수하는 데 심혈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어떤 이유라도 이 땅에 우리 독립군을 학살한 왜군 장교 박정희기념관 건립만은 국민

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는 절박한 구국의 심정으로 박정희기념관건립반대 투쟁에 참여하시며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국·내외 애국단체회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거듭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친일매국세력 청산하고 민족정기 되살려서 조국 자주 통일 완수하자!

2004년 11월 29일

박정희기념관반대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곽태영 김태준 윤한봉 이관복 이필우 이해학 조헌정 함세웅 홍근수 배례

(\* 조국을 배신하고 왜군의 앞잡이가 되어 무수한 우리 독립군을 학살하고 해방 후에는 국군으로 편입된 다음, 1948년 여순사태 때는 남로당 군사조직책으로 활동암약다가 특무대장 김창룡에게 체포되어 사형언도를 받자 자기가 포섭한 7천여 명의 명단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풀려나서 그 사람들을 처형케 한 배신의 반역자, 박정희를 위해 전 정권이 그의 기념관 건립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저지 투쟁하여 완전히 무산시킬 때까지의 과정을 담은 성명서를 실는다. - 곽 태 영)